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비한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

한국기계연구원 경영전략실

- ❶ 서론
- ❷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전략 수립 방법
- ❸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전략 분석 결과
- ❹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비한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

한국기계연구원 경영전략실

- ❶ 서론 / 1
- ❷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전략 수립 방법 / 3
- ❸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전략 분석 결과 / 5
- ❹ 요약 및 시사점 / 10

1. 서론¹⁾

□ 최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통상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논의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태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총 12개국이 참가, 협상 진행 중²⁾
- 12개 참여 국가의 GDP와 무역규모는 각각 27조 달러, 26조 달러로 세계 GDP와 무역규모의 38%, 26%를 차지
- 당사국(참여국) 간 협상이 타결, 최종 발효된다면 EU와 NAFTA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

○ TPP는 그간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참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더욱 주목

- 일본은 관세 철폐에 따른 자국 농업의 타격과 식품 안정성 확보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농산물에 예외를 포함시킨 FTA 체결에 집중
- 최근 들어 일본은 미국 시장 뿐 아니라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제조업과 소비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대에 더 큰 의의를 두고 TPP 참여에 박차
- TPP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일본은 우리나라 등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FTA 추진 성과 일거에 만회하고, 무역경쟁력 강화를 추진
- 미국·일본은 2014년 내 TPP 합의 도출을 목표로 양자 간 협상 진행 중³⁾

○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현재 TPP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를 통해 동향 파악 및 참여 여부를 검토 중

- 2013년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
- 12개 참여국의 TPP 협상 타결 후 및 공식 발효 시점 이전에 TPP 가입 검토⁴⁾

1) 본고는 곽기호, 박성우, 이운규(2014),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비한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일반기계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pp. 1501-1525에 게재된 논문을 재구성함

2)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캐나다, 칠레,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가 참여 중

3) 연합뉴스 2014년 9월 25일자 기사, <TPP 연내 합의 불투명...미일 각료급 협상 결렬>

4) SBS 뉴스 2014년 9월 22일자 기사, <한국 TPP 가입시기, 협상타결 후 발효 전 유력>

- TPP 참여 시 예상되는 업종별 효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중 기계산업은 공통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분류
- TPP 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TPP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 국가이면서, 수출 경합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
 - *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출 경합도보다 부가가치 기준 경합도가 더욱 높을 정도로 양국의 산업 및 경쟁 구조가 매우 유사해짐⁵⁾
 - 'TPP = 한·일 FTA'로 이해할 경우 TPP 가입에 따른 수입 확대에 따른 무역 적자, 제조업 경쟁력 약화, 농업 타격 등의 우려가 표면화⁶⁾
- 기계산업은 제조업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분류
 - 산업부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기준 대일 일반기계산업 교역의 무역특화지수는 2013년 현재 -0.61로 여전히 수입대체 초기⁷⁾
 - 기계산업의 대일 무역 수지 또한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여전히 연평균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 대일무역수지(억 달러): ('10) -117 → ('11) -121 → ('12) -104 → ('13) -92⁸⁾
 - 이효찬(2013)⁹⁾의 연구에서는 TPP 체결 시 일본산 일반기계류의 수입 단가 하락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 증가 우려
 - 김영귀(2013)¹⁰⁾는 일반기계산업은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다음으로 대규모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분류
- 기계산업의 대일 무역 경쟁 열위는 품목별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관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
 - 세부 품목 별 국내 생산 기반, 세계 시장 점유율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5) 사공목·신현수·이우광·박승록(2013), '한·일 산업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33.

6) 관련 내용은 이효찬(2013), '우리나라의 TPP 가입 효과 전망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및 뉴스원 2013년 12월 9일자 기사, <TPP참여 한일FTA 영향...득실 따질 것> 등에서 확인

7) MTI 71, 72, 732, 736, 75, 79 기준. 양평섭 외(2007)에 따르면 TSI는 (특정 품목 수출액-수입액)÷(수출액+수입액)으로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품목의 TSI 값이 $-0.8 \leq TSI \leq -0.4$ 구간인 경우 수입대체 초기로 분류

8)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MTI 71, 72, 732, 736, 75, 79 기준

9) 이효찬(2013), '우리나라의 TPP 가입 효과 전망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0) 김영귀(2013),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공청회 자료, 2013년 11월 15일.

2.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전략 수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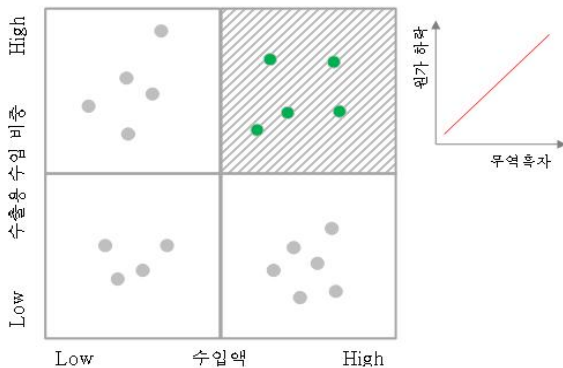
- 무역 정보·경쟁력 지수와 국내 생산액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3단계에 걸친 관세 전략 수립
 - (무역 정보·경쟁력 지수) 품목 별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 무역특화 지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활용
 - (국내 생산액) 국내 생산 규모와 기반을 고려한 품목별 맞춤형 관세 전략 수립에 활용
- ① 품목 별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을 활용해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시 수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
 - 수입 규모가 크고 수출용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관세 인하 시 해당 품목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절감과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해당 품목은 수입을 억제하기보다는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는 것이 수출 확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 수출용 수입 증가가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권용덕 외, 2006; 장상식, 2013) 결과와도 부합¹¹⁾
- ② 품목 별 국내 생산 규모와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함으로써 국내 생산 기반과 구조, 무역 경쟁력을 고려한 품목별 맞춤형 관세 전략을 수립
 - 국내 생산 규모와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역내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
 - * 국내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고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
 - 생산 규모가 크지만 무역특화지수가 낮은 품목은 관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 기반 보호 및 중장기 육성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
 - * 국내 생산기반이 크지만 세계 시장에서 비교열위인 품목으로 관세 인하 시 국내 산업기반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
 - * 기계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타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 정책이 동시에 필요

11) 권용덕·이현지·이한성(2006), “동시다발적 FTA체결 협상 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 임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6호, 2251-2278. / 장상식(2013), ‘수입 증가세 전환 가시화, 수출용 및 자본재·소비재가 주도’, 국제무역연구원 IIT Trade Brief 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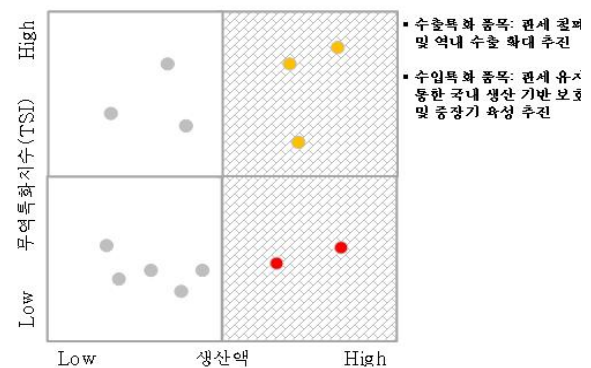
③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이 유망한 품목을 발굴

- 국내 생산 기반이 크지 않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크고 무역특화지수가
높다면 기술 역량 구축을 통해 히든 챔피언 유망 품목으로 육성 필요
- * 어떤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TSI가 높다면 수출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해(권용덕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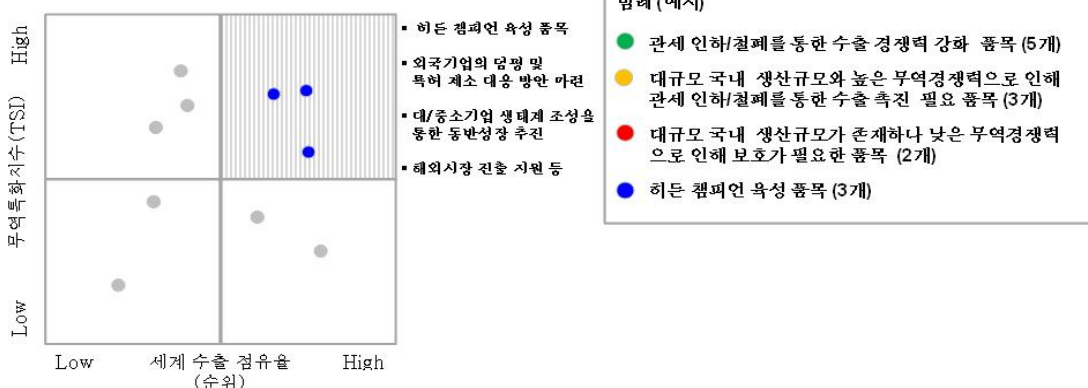
1. 관세 인하/철폐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품목 발굴



2. 국내 생산규모와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수출 촉진 및 보호 품목 발굴



3.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한 품목 발굴



<그림 1> 수출입 및 수출 점유율, 생산액 통계를 활용한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 예시

- 관세 전략은 HS Code 호(4Digit) 또는 소호(6Digit) 단위의 기계산업 66개 품목의 2012년 무역 정보·경쟁력 지수 및 생산액의 평균 값을 활용하여 수립
-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에서 관장하는 상품분류체계로 상품분류의 단위에 따라 류(2단위), 호(4단위), 소호(6단위) 및 통계부호(10단위)로 구분
- 기계산업은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476개 품목¹²⁾으로 구성되나 각 품목 별 국내 생산 규모 파악을 위해 4단위 또는 6단위 품목 66개로 재조정

12) 한국기계연구원(2014), '우리나라 기계산업 품목별 수출 시장 점유율 분석과 시사점', 기계기술정책 75호

- 66개 품목의 국내 생산 규모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 세세분류(5Digit)와의 연계 작업을 통해 산출
- 본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의 시계열과 범위는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2012년으로 한정
 - 국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상품 교역 수출 비중*과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큰 변화가 없음을 고려
 - * 2010년~2012년 동안 각각 8.8%, 3.0%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 2012년 기준 66개 품목의 총 수출입 규모와 생산액은 각각 470.4억 달러, 387.2억 달러, 97.7조 원으로 집계
 - 2012년 기준 66개 품목의 평균 수출 점유율은 2.9%로 나타났으며, 평균 무역특화지수는 0.048, 평균 생산액 규모는 1조 4,796억 원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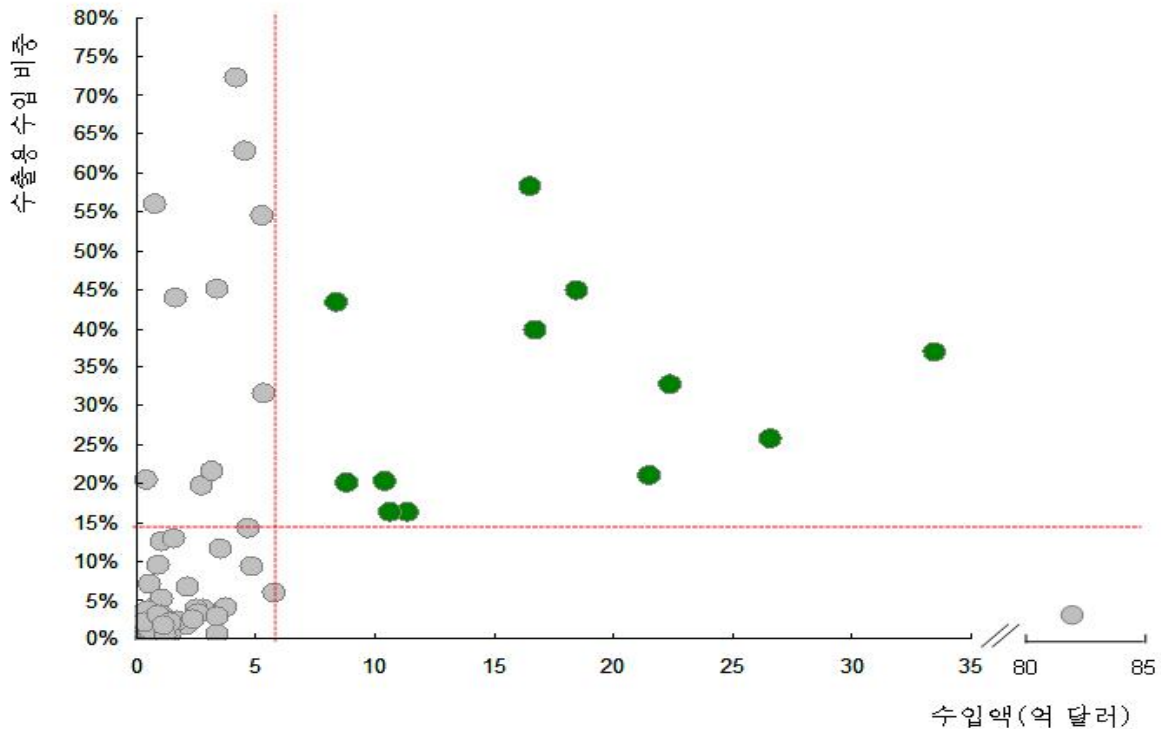
<표 1> 일반기계산업 66개 품목의 수출입 및 생산액 기술 통계량 (2012년)

구분	최소	평균	최대	계
수출(백만 달러)	2	713	5,392	47,042
수입(백만 달러)	7	587	8,219	38,723
수출용 수입 비중(%)	0	14.6	72.2	-
수출 점유율(%)	0.1	2.9	17.2	-
생산액(억 원)	166	14,796	95,976	976,563
무역특화지수(TSI)	-0.778	0.048	0.914	-

3.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전략 분석 결과

-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입규모가 크고 수출용 수입 비중이 높아 TPP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 시 원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12개 품목을 발굴
- 12개 품목의 수입 규모는 205.5억 달러로 우리나라 기계산업 총 수입의 53.1%, 수출은 237.9억 달러로 총 수출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
 - (12개 품목) 선박용 엔진 및 내연기관(압축점화식), 내연기관 부분품, 액체펌프, 압축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액체·기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 건설광산기계 부품, 오프셋 인쇄기 및 기타 인쇄기, 목질 물질 제조 프레스,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 30억 달러 이상의 흑자 기록하고 있어 관세 인하·철폐 시 수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그림 2> 일반기계산업 66개 품목별 수입액과 수출액 수입 비중 (2012년)

<표 2> 관세 인하·철폐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 품목(12개, 2012년)

품목명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수출액 수입 비중(%)	수출 점유율(%)
선박용 엔진 및 내연기관(압축점화식)	2,583	2,662	25.8	1.6
내연기관 부분품	2,181	1,654	58.3	0.8
액체펌프	1,332	1,847	44.8	2.0
기체펌프(압축기)	2,159	2,155	20.9	2.2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533	1,138	16.3	1.7
액체·기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	1,054	1,045	20.3	3.3
건설광산기계 부품	2,202	837	43.3	7.1
오프셋 인쇄기 및 기타 인쇄기	526	882	20.0	4.1
목질 물질 제조 프레스	5,392	3,346	36.9	2.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2,036	2,242	32.7	6.6
베어링	563	1,068	16.2	3.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1,229	1,676	39.7	2.5
계	23,790	20,553	32.5	-

- 12개 품목 중 액체펌프는 수출액 수입 비중이 높으나 약 5억 달러의 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인하·철폐의 득실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

- 국내 생산규모와 무역특화지수 비교·분석을 통해 관세 인하·철폐를 통한 수출 촉진 품목 9개와 관세 인하 유예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할 품목 3개 발굴
- (수출 촉진 품목 9개) 2012년 기준 수출 116.5억 달러, 무역 흑자 92.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 확인
- 9개 품목은 국내 생산 규모가 크고 수출특화 품목으로 관세 인하·철폐를 통해 상호 시장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촉진이 바람직한 품목으로 분류
 - 운반하역기계, 선박용 엔진 및 내연기관(불꽃점화, 왕복·로터리 방식), 지게차, 상업용 냉장·냉동기, 금형 및 주형, 건설기계, 에어컨, 기타 엔진 및 부분품, 산업용 로봇이 이에 해당
 - 국내 생산규모 또한 35.6조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상호 시장 개방 시 수출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건설기계는 2012년 현재 45.4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

<표 3> 개방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이 효과적인 품목(9개, 2012년)

품목명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수출용 수입 비중(%)	수출 점유율(%)
운반하역기계	756	533	3.1	3.1
선박용 엔진 및 내연기관 (불꽃점화, 왕복·로터리 방식)	1,328	527	3.2	3.2
지게차	645	76	0.4	4.2
상업용 냉장·냉동기	687	158	12.9	3.4
금형 및 주형	1,702	92	9.4	9.6
건설기계	4,748	212	1.7	8.5
에어컨	1,254	352	11.6	3.3
기타 엔진 및 부분품	377	340	45.0	2.0
산업용 로봇	156	118	1.7	4.1
계	11,653	2,408	10.9	-

- (산업기반 보호 품목 3개) 국내 생산 규모는 크지만 무역특화지수가 낮은 품목으로 공작기계 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산업용 오븐·노 및 노 용 버너가 이에 해당
- 3개 품목의 2012년 수출입과 국내생산 규모는 각각 26.9억 달러, 91.8억 달러, 생산 13.9조 원으로 대규모 국내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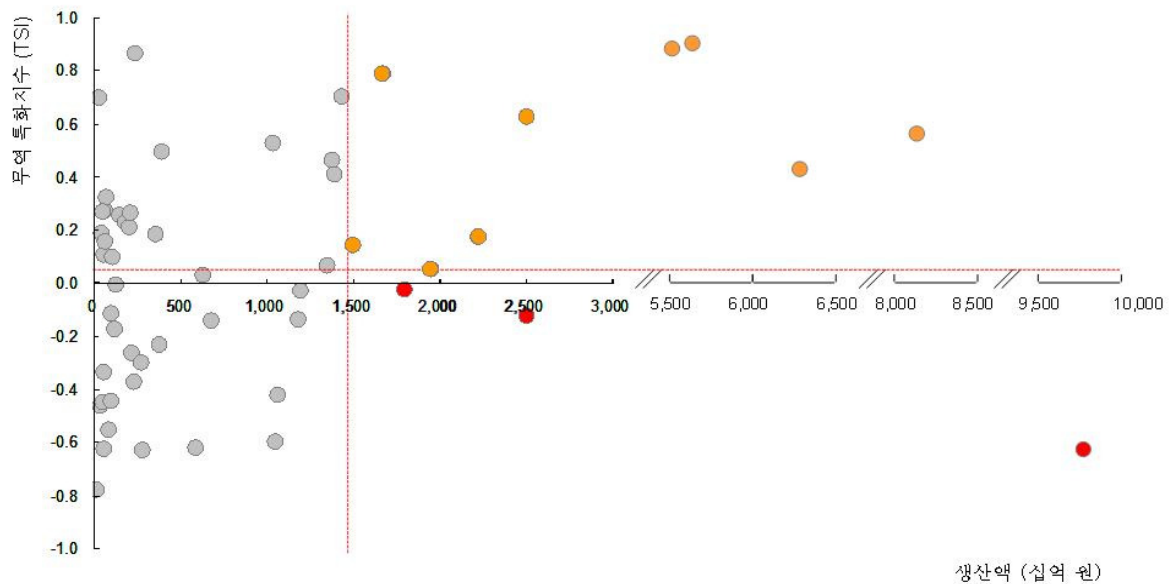
- 3개 품목의 수출용 수입 비중은 3.9%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 목적은 내수 충족이 대부분을 차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는 세계 수출 점유율 5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용 수입 비중도 3%에 불과

- 3개 품목은 관세 인하 시기 유예 등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이 필요

<표 5> 국내 생산기반 피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품목(3개)

품목명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수출용 수입 비중(%)	수출 점유율 순위
절삭 및 성형기계 부분품	451	473	14.1	11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378	483	9.3	6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1,858	8,219	3.0	5
계	9,176	2,687	3.9	



<그림 3> 일반기계산업 54개 품목 별 국내 생산규모와 무역특화지수(2012년)¹³⁾

□ 세계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국내 생산 규모는 작지만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 가능한 9개 품목 발굴

- 9개 품목의 생산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높은 무역특화지수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¹⁴⁾

13)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은 이전 단계 분석에서 발굴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1단계 분석에서 도출된 관세 인하/철폐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12개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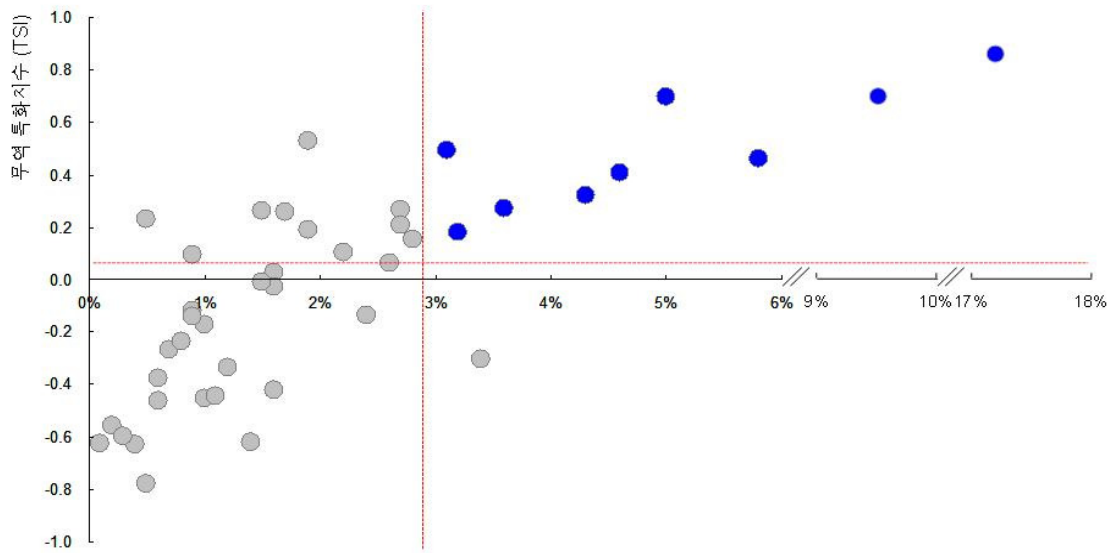
14) 2단계 분석에서 국내 생산규모가 큰 품목에 대한 분석이 종료됨을 참고(<그림 3> 참고)

- 상업용 세탁·표백·염색기계, 레이저·방전·워터제트 공작기계, 기계식 프레스, 머시닝센터, 금속 절삭 선반, 가죽 및 모피 가공기계, 인발기·드로우벤치·와이어 드로잉기, 편직기, 자수기, 드릴링·보링·밀링 머신이 이에 해당
- 9개 품목의 총 생산액은 2012년 9.5조 원으로 기계산업 총 생산액의 9.7%에 불과하나 무역 흑자는 32.9억 달러로 전체 무역 흑자의 40% 차지
- 9개 품목의 평균 세계시장 점유율은 6.3%로 일반기계산업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3.1%)을 크게 상회
- 상기 9개 품목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특수·전용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 품목으로 이해
- 기계산업 기술추격에서의 난관을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의 관점에서 지원 정책이 필요
- 과거 국내 기계산업은 국내 수요 대기업의 외면, 경쟁 해외기업의 덤핑 공세, 수출 시장에서의 특허 소송 등의 관점에서 난관에 봉착¹⁵⁾
- 다국적 전문기업과의 협력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아이템 개발, 해외시장 비관세장벽 대응, 지식재산권 강화 지원, 세계적 브랜드 확보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

<표 6> 히든챔피언 유망 품목(9개)

품목명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수출용 수입 비중(%)	수출 점유율(%)
상업용 세탁·표백·염색기계	1,117	81	56.0	17.2
레이저·방전·워터제트 공작기계	995	337	0.5	3.1
기계식 프레스	653	241	2.5	5.8
머시닝센터	623	262	3.2	4.6
금속 절삭 선반	784	137	1.9	9.5
가죽 및 모피 가공기계	42	8	3.0	5.0
인발기, 드로우벤치, 와이어 드로잉기	85	49	3.6	3.6
편직기, 자수기	116	60	1.1	4.3
드릴링·보링·밀링 머신	155	107	3.1	3.2
계	4,570	1,281	5.5	-

15) 김윤지(2006), “기계산업에서의 중진국 함정과 기술추격: 한국 기계산업의 사례,” 기술혁신연구, 제14권 제1호, 147-175.



세계시장 점유율

<그림 4> 42개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한 히든챔피언 유망 품목(9개) 발굴¹⁶⁾

4. 요약 및 시사점

- 무역 정보·경쟁력 지수와 국내 생산액을 활용하여 향후 TPP 참여 및 협상 시 필요한 기계산업 품목 특성 별 관세 전략을 수립
 -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수입 원가 절감(수출경쟁력 강화)을 피해야 할 품목 12개 선정
 - 국내 생산 규모가 크고,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 상호 개방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를 피해야 할 품목 9개 선정
 - 국내 생산 규모는 크나, 무역특화지수가 낮아 국내 산업 기반 보호가 필요한 품목 3개 선정
 - 생산규모는 작지만 높은 무역특화지수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성장이 가능한 ‘히든 챔피언’ 품목 9개 선정
 - 관세 전략을 수립한 33개 품목이 기계산업의 수출·수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90.8%, 86.3%, 87.8%)을 감안했을 때, 본 분석은 기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세 전략 수립 결과로서 활용 가능

16)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은 이전 단계 분석에서 발굴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1/2단계 분석에서 도출된 관세 인하/철폐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24개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

<표 7> TPP 참여 및 협상에 대비한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

구분		무역 개방확대	관세 보호 및 정책 지원	히든챔피언
대응 전략		조기 개방(관세 인하, 철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확대	관세 인하 유예·지연 중장기 R&D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해외 시장 진출 확대(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지적 재산권 강화, 마케팅 지원) 및 생산성 제고 지원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개 품목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이 큰 품목 (1단계 분석, 12개 품목) 국내 생산이 크면서 수출특화 품목 (2단계 분석 9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품목 국내 생산이 크나, 수입특화 품목 (2단계 분석 3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품목 국내 생산은 작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출특화 품목 (3단계 분석 9개 품목)
기계산업 내	생산 비중	68.1%	5.7%	9.7%
	수출 비중	75.3%	23.7%	3.3%
	수입 비중	59.3%	14.2%	5.5%

- 무역 통계와 생산 통계, 수출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과 무역특화지수 등 경쟁력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관세 전략 수립의 방법론 제시
 - 무역 개방 확대 품목, 관세 보호 및 정책 지원 품목, 히든챔피언 육성 품목을 발굴하는 전략은 향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업·품목 통계 및 분류체계 간의 연계를 통해 국내 산업 기반과 규모,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관세 전략 수립의 중요성 제시
 - ‘수출용 수입 비중’을 활용함으로써 관세 전략 수립 시 수입 물가 하락에 따른 완제품 수출 경쟁력 향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TPP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임을 고려할 때, 상대국과의 교역 관계 뿐 아니라 상대국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세 전략의 보완이 필요
- 생산 규모 외에 사업체 수, 산업 집중도 등의 산업 구조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이 가능할 전망

기계기술정책

Technology Policy for Mechanical Engineering

:: No. 76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비한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

| 발행인 | 임용택

| 발행처 | 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경영전략실

| 발행일 | 2014.09

| 기획·편집 | 곽기호, 박성우, 이운규, 박주형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번지

| 전화 | (042) 868-7682(경영전략실)